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살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판: 편집지>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 법공양 페이지

# 경계·욕망 조복받으면 대평화 얻어

### 15면에서 계속

로에 넣어 녹여라! 나오는 것을 되놓고 침착하게 지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진실한 나를 구할 때는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관해 보세요. 수행이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내 앞에 닥치는 대로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면서 대로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면서 대로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실험하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 확실히 방법 무엇입니까

**문** '나'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없는데, 있다 없어도 없는데 말입니다. 확실대로마저도 없는데, 정말로 차원 아닌 차원, 무한량의 차원의 맛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렇게 확실대로 해왔다면, 그렇게 않으면 욕심을 바꾸든지 안되면 우주의 존재로 남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한번 선의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못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돌 받아 가면서 일회일회하면서 끄달리며 살수는 없습니다. 사람 몸을 받고 정법을 만났을 때 직통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답** 주인공은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넘나들면서 언방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에 따라서 자연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 비좁은 마음으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모습인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서 항상 '나' '내가' '나' '나' 하고도 있고, 그런 진리와 함께 회전하는 마음이 아니고 한군데 고정된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내가' '나' '나'를 뽐내 그 자리에 맡겨 놓으면 죽은 세상 산 세상을 넘나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나를 고정되게 세우지 않고 자유로이 돌면서 넘나드는 것이 중요입니다.

**문** 그리고 중도는 곧 중심이란 뜻인데 그 곳곳한 중심이라는 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것이 중심입니다. 큰 중심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게 마련이죠. 그런 중도, 중심이 선 뒤에야 할 지혜가 나타나오는 것이고, 현상 세계에 알맞는 판단이 딱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은 그런 중도, 중심, 중용이 되고 또 저절로 진리에 그런 판단이 서질 못하는 거죠. 판단이 서질 않아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좀 많습니까? 그러나 이 중심이라는 것이 자비 중용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데로만 치우치고 그래선 안되죠. 또 모른다고 해서 고정되게 항상 모르거나 하면 안되죠?

**답**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인공 자리에서 다 모두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 놓으면 내 근본 자리로부터 유위, 무위를 스스로 다 회전시키기 때문에 저절로 중도, 중용이 되고 또 저절로 진리에 부합하도록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해도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 가지 만 가지를 자유롭게 생산해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생산을 해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 거죠. 생산한 것들을 거두어들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생산하고 거두어 들이는 것들이 모두 한 군데서 다 나고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다 놔다 하는 것이 가능한 까닭은 다 쉬고 맡겨 놓았기 때문에 중도가 되고, 중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있으므로 중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깨우치겠다고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서두

르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믿고 놓으며 여려한 마음가짐으로 보살행을 할 때 그것이 곧 참선이며 올바른 수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란 찾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냥 쉬고, 맡길 뿐입니다.

### 끔찍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문** 생활하다 보면 항상 머리 속에는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생각 중에 생각이 말아야 하는 끔찍한 생각이 올라 올 때면 지도 모르 게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왜 그런 생각들이 나오 모르게 올라오며 그런 끔찍한 생각들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공부할 하는데 아무리 많은 망상이 일어나도 할지라도 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또한 과거에 입력된 대로 주인 공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니 나온 곳마다 되돌려 놓을 때 자연히 볼 눈 녹듯 스스로 녹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끊어야 한다고 애를 쓰면 끊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많은 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끊어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내는 것도 결국은 망상이니까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는 말이 있듯이 넘어지는 것도 거기고, 일어나는 것도 거기이므로 지혜로써 활용해야지, 참은 소견으로 없애고 끊는 것이 해결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수행법이 될 수 없습니다.

**문** 그리고 공부할 때에는 나쁘다 좋다를 분별하기 이전에, 나쁘다는 생각이 나온 곳도 거기고 좋다는 생각이 나온 곳도 거기이니, 나쁘지 않게 생각이 틀게 하는 것 또한 그 자리에 있는 것 알아서 한 생각 들려서 놓고 뜻으로 감성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오직 주인공에 일임하고 늘 감사함을 느끼며 과거에 지은 대로 부딪쳐 오는 경계들을 되돌려 놓음으로써 결국에는 어떠한 경계에도 끄달리지 않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 말하되 말하지 않는 도리

**문** 보되 보지 않고 말하되 말하지 않고 듣되 듣지 않는 도리가 공중해서 질문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이때에는 둘이 아니기에 그냥 말하고 '그래, 저것도 둘이 아니잖아. 안 좋으면 고쳐야지.' 하고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해서' 안되는 거죠. 아니면 말걸고 동시에 그것마저 동방 있어야 하나요.

**답** 보이고 들리는 것에 의하지 말라고 하고 보고 듣게 하는 근본을 지켜보세요. 그 근본에서 일체가 다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보이고 들리는 것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보고 참작하고, 먹을 건 먹고 버릴 건 버리면서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관습에 이끌려 안되고,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안되고 짐작을 해도 안됩니다. 모든 것은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갈 뿐이니까요. 붙들고 늘어지면 오히려 고가 생기고, 그리고 벗어날 수 없이 참참이 쌓입니다. 끄달리지 말고 그런 의정이 나오는 것도 주인공 뿌리이니 그 자리에 모든 걸 맡기세요.

**문** 그리고 우리들은 항상 자기를 다스려 나가면서 어떠한 괴로움이 닥친다해도 실사 상태로 인해서 망했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없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내가 없다면 상대도 없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고, 자기 주처인 한미음 주인공에 맡겨놓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해 준다면 오래지 않아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이를 가르쳐줘야겠다. 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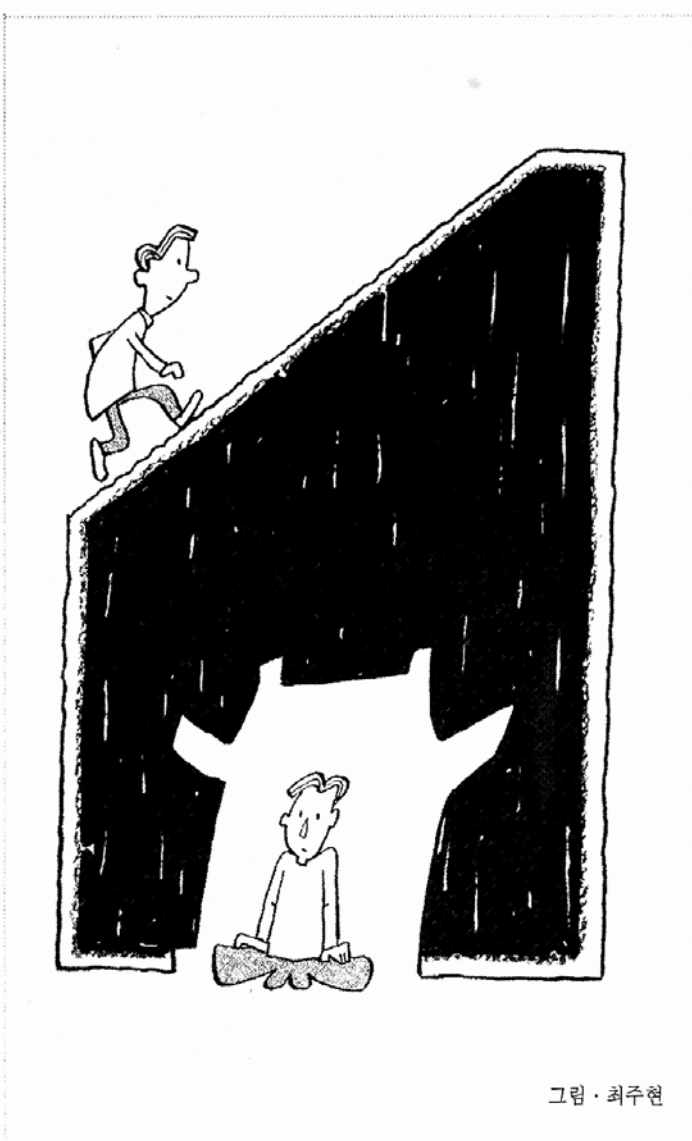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불법은 콩 심고도 팔 거두는 묘법

## 믿고 놓으며 보살행 하는게 수행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지이는 저렇게 틀렸어 하는, 건건이 올라오는 그 생각들도 다 내의 생각이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나로 하러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전구는 각각이나 전력은 같듯이 모습은 각각이지만 마음은 둘이 아니라 둘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유있게 그 마음들을 바라볼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 개고기·뱀 먹으면 안되는 이유

**문** 세간에 요즈음 영양탕 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겠지요. 저는 그런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의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즐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막연하게 불자들은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만 알고 있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명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불자들은 개고기나 뱀을 먹어서는 안되는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답** 어떤 사람이 뱀을 아주 무지하게 때려 죽였대요. 아마 땅꾼이었겠죠.

그런데 산을 다니면서 땅꾼 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수행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자와 함께 얘기를 같이 하다가 스님께서 '살생을 그렇게 많이 하고서 돌아가니 어찌 여생을 거치면서 지어온 그 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하니 땅꾼이 하는 말이 "수만 마리를 죽였다 하더라도 나는 죽인 사이 없고, 그 수만 마리의 몸이 내 몸이니 지금 현재에 이렇게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뱀이 자기라는 거야. "수만 마리의 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니 어찌 풀이겠습니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분이 깜짝 놀라서 거기에서 그냥 훌쩍히 터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뱀이 소다 돼지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일체 만물만생이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마음과 본래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취하는 사람에게는 살생이 살생이 아니라 천도를 시키는 자비의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도리도 모르고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취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고 되죠. 그러기에 부득이하게 그것

을 취해야 할 때에는 그 동물의 생명과 내 생명을 둘 아나게 하나로 규합해서 지극하게 관하고 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취함을 당하는 동물과 취하는 내가 둘이 아나게 돼야 그 동물은 몸을 벗어서 좋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니 양면이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선도 악도 본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도둑이 칼을 잡으면 강도가 되지만, 의사가 칼을 잡으면 환자를 살리는 활인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그 내면을 짚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단식을 하고 싶습니다

**문** 저는 올해 26살의 여성으로 불도에 대해 많은 걸 알지 못하지만 마음을 잘 다스려 착한 일 많이 하고 약한 일 하지 않으며, 상구보리 하여 하화중생하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가장 큰 목적이라 믿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미물이라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며, 힘든 이를 보면 도와주는 것을 부처님 대하듯 해야 하다가에 나름대로는 불도에서 말하는 보살행을 닦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간 조용한 사찰에 머물며 단식을 하여 제 마음의 맑고 음식의 탐욕을 줄이려고 생각중인데, 어떻게 단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단식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단식이라는 게 그냥 밥을 굶고 먹을 것을 안 먹는 것이 단식이 아닙니다. 단식의 근본 뜻은 먹어도 먹는 사이 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애기하지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들어오면 그 것도 단식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기 때문이지, 만약 걸음을 걷는 대로 내가 움직여왔다면 그건 단식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 걸어들어오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고 먹습니까? 먹게 되면 그냥 먹는 거지요. 통을 누는데 뭐야 될까, 안 뭐야 될까 하고 통을 들니까? 그러나 일상생활이 그대로 단식이고 그대로 활공법이며, 여러분이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관습, 집착, 욕심이 끼여 밝게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볼 수가 없고, 들을 수 없고, 밟을 때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묘법이요 그대로 활공법임을 제대로 안다면 그대로 노력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단식이란 말을 안 할 뿐 단식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몸 속의 많은 자생중생들이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혼자 먹는 게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혼자 먹는 게 없고, 혼자 보는 것도 없고, 혼자 듣는 것도 없고, 혼자 가고 혼자 오는 것도 없고, 혼자 사는 것도 없고 혼자 돈을 버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려하게 걸림없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본래 주어져 있는 것이니, 어떤 결정을 하건 본인 스스로, 진정 나를 이롭게 하는 길로 이끌고 가게끔 주인공에 관해 보고 길을 선택하기 바래요.

### 간화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문** 간화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러 조사들께서는 화두를 잡고 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믿고 들어오면 된다고 하시겠지요. 큰스님이 가르쳐주시는 관하는 방법은 옛날부터 행하여져 왔으나 근기가 아주 수승하지 않고서는 초발심자들은 간화선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어느 스님께서도 말씀하시더군요. 가르침

바랍니다.

**답**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진하는 것입니다. 정진을 해야만이 그것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정진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진이라는 그 자체까지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번소에 가나, 나오나 드나, 법당에 가나 참선이라고요,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와선이니 좌선이니 참선이니 또는 입선이니 하는 이런 게 거론되지 않습니다. 간화선이니 묵조선이니 하는 이런 조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선이니 좌선이니 할 것 없이 우리가 움직여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간화선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믿고 안으로 굴러고, 남을 원망 안 하고, 남한테 듣는 것을 거름 삼아서, 주춧돌 삼아서 내 것을 만들고, 또 내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붙들고 있어도 아니 됩니다. 느꼈으면 느낀 대로 그냥 놔버려야 되겠죠, 그것도.

그래서 '그릇에 담긴 것은 먹고 놓고, 안 담긴 것은 믿고 놔라' 이런 말을 했죠. 담긴 것을 먹을 때에는 맛있게 감사하게 먹고, 안 담긴 것은 믿고 놔라! 그 뜻이 뭐냐하면, 안 되는 것은 믿고 놓고 되는 것은 감사하게 놔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참선 못할 분이 없을 겁니다. 심상한 꼴을 가지고 내가 나를 들고 다니면서 조금도 허탕한 일이 없이,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도 다 놔버린다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날이 꽃었다고 해서 날이 항상 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금방 날이 듬니다. 그런데 날이 들었다 해서 붙들고 있고 날이 꽃었다고 해서 또 붙들고 있고 이런다면 이것이 공부에 얼마나 지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화두를 또 잡고 늘어진다면 구멍 뚫린 그릇에 불과한 것보다가 구멍을 막아놓고 또 의정을 내는 거나 같거든요. 보십시오, 예전과 지금이 얼마나 시대가 달랐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순응하고 시대가 바뀌는 대로 쫓아가야 될 텐데, 아직도 고집 잡고 안다면 그런 고집불통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유행법 50%를 의심하고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50%를 그냥 뛰어 넘겨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변연히 다 아는 거를 아무리 의정을 내봐도 걸들기입니다. 맷돌 걸들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오래 공부해도 안 됩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몰록 나서 참나를 알았을 때, 그건 어린애가 새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기르는 데도 보임하면서, 체험하면서 한발 한발 때어놓는 그 공부야, 공부 아닌 공부야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렇게 해나가다, 알 수 없는 무의 세계, 미지수의 그 묘법이 나와, 진짜 의정을 내야죠. 아니,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서 무슨 의정을 배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있는 말 같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에 길을 인도하는 사람도 진실해야 하겠거니와 길을 인도하는 사람도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법당에 들어오면 그 법당의 부처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한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색신은 색신대로, 여기 이 세상의 때어질 수 없이 많은 물질대로 역력하게 돼 있고, 역력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됨이 하나도 없으니 바로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그것을 또 이론으로만 알고, 남의 말을 듣고 책을 보고 알고, 주장자 한번 광 내리쳐서 되는 게 아니라 배워옵니다. 만약에 남의 소리를 듣고서 흥내만 내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법을 가지고 거론한다면 그건 정말이지 부처님 법에, 아니, 진리에 참으로 어긋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이름의 문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의 문제로 고민하기보다는 딱 잘라서 그대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짜본 안목을 넘고 고된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51 288쪽  
 값 6,000원  
 예시어준